SYMLOG(System for the Multiple Level Observation of Groups : 집단 다수준 관찰 시스템)을 활용한 가정의 건강성 측정 도구 개발

김 정 근(한양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 김 혜 연(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부 교수)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설립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의 문제해결이 아니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양한 건강가정사업을 통해 가정의 건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과 구별되는 고유한 역할과 기능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의 건강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가정의 건강성은 이론적, 개념적 수준에서 다양한 생활영역들로부터 초래되는 총체적 개념으로 논의되어져 왔다. 이로 인해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가정의 건강성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거나 가정의 건강성을 구성하는 부분적인 생활영역들의 측정 도구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가정의 건강성의 중요 생활 영역인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 및 관계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가정은 가족원 간에 밀접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소집단으로, 부부관계 및 부모관계 등 하위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가정의 건강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가정의 건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원의 갈등 해소 및 관계의 질 향상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감정적 몰입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 그래서 관계의 질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 측정치가 마련되어야만 그것을 기초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가족원 간의 역동성 혹은 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개발을 위해 본 연구는 소집단 내 구성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도구인 SYMLOG (System for the Multiple Level Observation of Group : 집단 다수준 관찰 시스템)를 활용하고자 한다. SYMLOG는 Bales와 Cohen(1979)이 집단 내 구성원들의 행동 혹은 가치특성에 근거하여 집단원들의 관계의 역동성을 진단하기 위한 도구로써 1950년대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SYMLOG는 현재 전 세계 40여개 국가에 걸쳐 12개 언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팀이나 가족 등의 소집단 역동성(group dynamics)의 현상을 진단하여 구성원간의 관계의 질을 개선하는데 적용하고 있다. SYMLOG는 집단의 구성원간의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차원, 과업차원 및 지배성 차원의 3개 차원을 진단하기 위하여 각 문항에 2~3개의 가치 형용사로 구성된 26개 문항의 측정도구를 활용한다. SYMLOG을 통한 진단결과는 개인의 가치 및 행동특성 뿐만 아니라 가족의 역동성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개별 가족원들의 자아인식(self-awareness)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신 스스로 인식하는 타인에게 보여주기를 희망하는 상 (expect image), 내가 희망하는 상(wish image), 내가 거절하는 상(reject image), 그리고 실제 자신의 이미지 (self image)에 부가하여 주위의 타인이 보는 실제 이미지를 구분하여 진단한 결과를 3차원의 다이아그램 표현함으로써 자아상들의 일치성을 한 눈에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김용주, 2008; 김정근, 2010). 이러한 SYMLOG는 소집단이나 가족원들의 응집성을 강화시키고, 구성원의 만족도 및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인(intervention)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Gully et al., 1995).

SYMLOG는 박재호(1983)에 의해 우리나라에 소개된 이래 기업조직에서 팀 효과성 증진 및 리더십 개발 등(이동영과 김희선, 2000; 임종일, 1998)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그 효과성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SYMLOG은 가족구성원간의 관계의 질을 진단하고 가정의 건강성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장면에 적용하기 위한 사례개발 및 활용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 문화권에서 가족원 및 가족원 간의 관계의 역동성을 진단하기 위한 26개 가치문항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과 함께 실제 가족 상담 전문가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